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한 성희롱예방교육



한국능률인재개발원
지부장 안수연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법 제2조 제2호)

언론, 대법관 후보에 전직 국회의원 부인 꼬리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해 대법원의 다양성을 키웠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주요 언론은 민 판사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이 남편'이라는 설명을 앞세우고 있다.

언론은 안철상 지법원장을 '정통 법관'으로 표현한 반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고,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법원 내 양성평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 민유숙 부장판사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 부인'이라는 수식을 빼놓지 않았다.

직접차별	간접차별
차별 의도	차별 결과

직접차별

-여성과 남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구별, 우대, 제한, 배제 등으로 다르게 대우하여 여성 또는 남성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간접차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지만, 그 조건이나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여성, 또는 남성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

- 채용조건으로 '신장 170cm'라는 것.

언제 성희롱이 되나?

-성희롱 등의 기준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성적 수치심**으로 판단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친밀도

◎발언 당시 분위기

◎해당 발언 전후의 대화내용

◎장소나 상황에 따라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1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공공기관(단체) 종사자,
사용자

성립요건

- ▶ (직장 내) 지위·직위를 이용하여
- ▶ 업무와 관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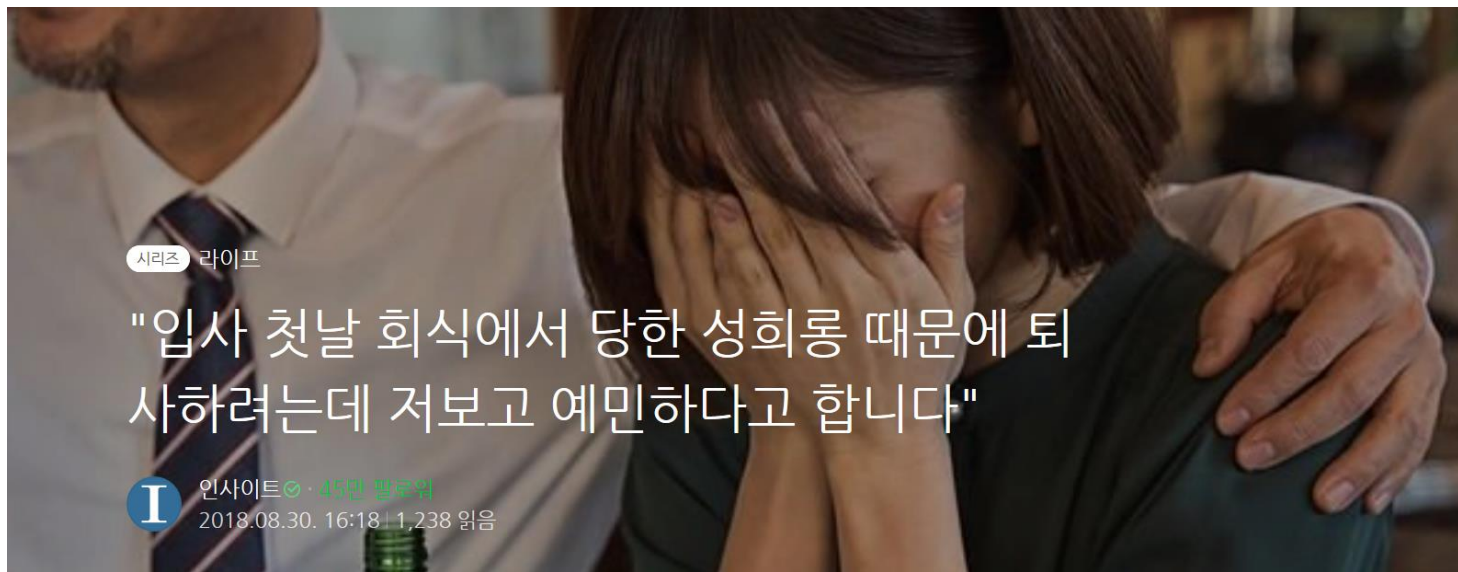
피해자

- ▶ 근로자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성립요건 2

- ▶ 성적 언동으로
-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고용상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리즈 라이프

"입사 첫날 회식에서 당한 성희롱 때문에 퇴사하려는데 저보고 예민하다고 합니다"



인사이트 · 45만 팔로워
2018.08.30. 16:18 | 1,238 읽음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회식이라는 명목 아래 억지로 술을 먹이고 은근슬쩍 허리에 손을 감는 상사.

그러나 주위에서는 이를 아무도 말리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분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리꾼 A씨는 입사 첫날 부푼 기대를 안고 회사로 향했다. 하루 종일 긴장한 탓인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고, A씨는 그날 저녁 첫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됐다.

고깃집에서 상사가 아픈 사람에게도 계속 술을 따라주면서 억지로 먹기를 강요했던 것.

게다가 2차로 옮긴 노래방에서는 남직원들이 여직원들의 허리에 손을 감고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는 등 여기저기 명백한 성희롱이 난무했다.

그 순간 노래방에 직장 동료들과 즐겁게 놀러온 게 아니라 술집여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은 A씨.

그는 함께 자리에 있던 상사들이 이를 제지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신이 나 즐기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한 직장상사로부터 "오늘 출근해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식에 와서도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거냐"는 말을 듣기도 한 A씨.

그는 상사가 말하는 '회식에 와서 신입이 해야 할 일'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A씨의 불편한 내색에도 '회식에 와서 신입이 해야 할 일'을 자꾸 강요하는 상사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면서 불편한 자리를 이어나갔다.

결국 A씨는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하고 막무가내로 술을 강요하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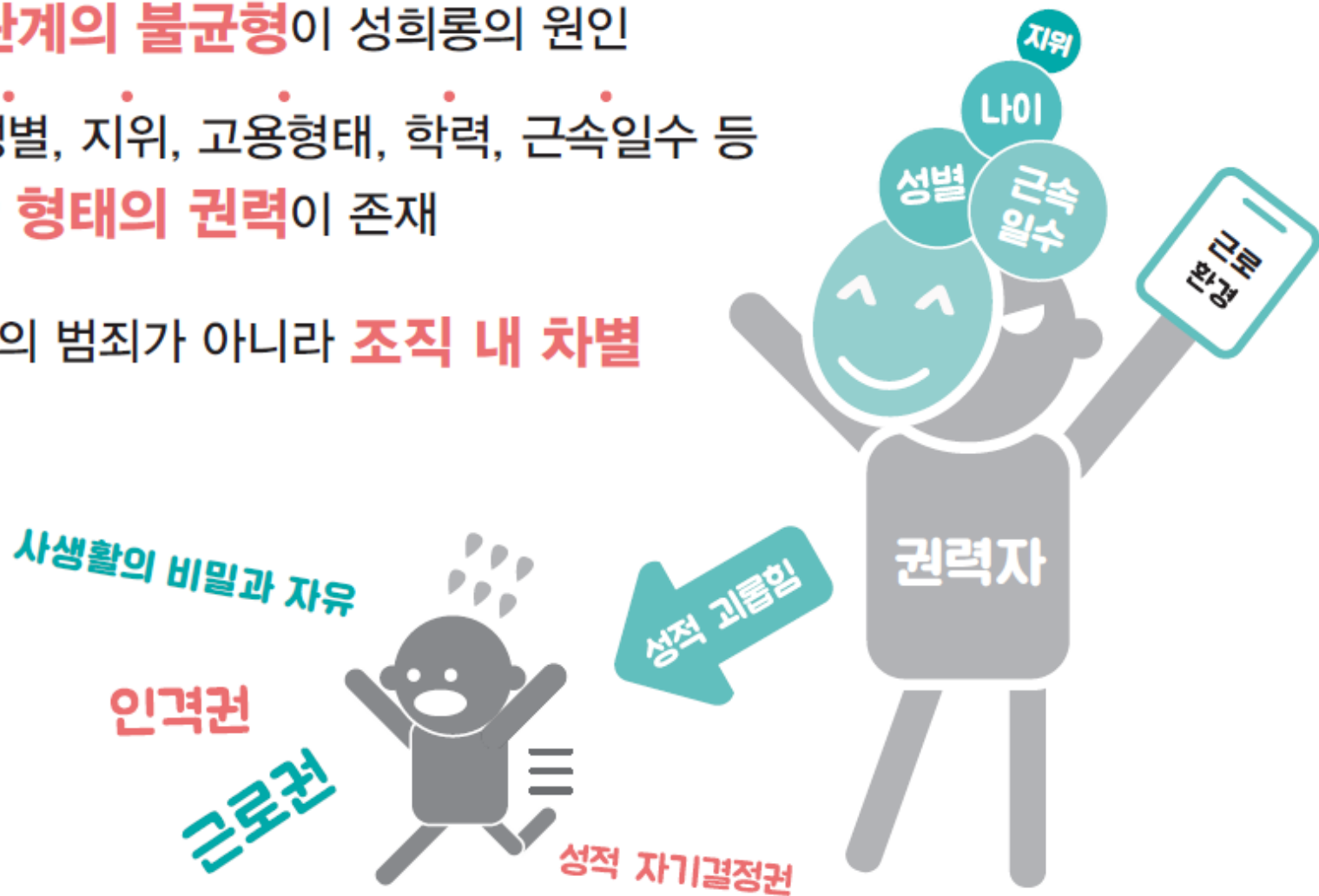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는 A씨처럼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는 고통을 토로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상담 증가 추세가 2013년 236건에서 2017년 692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세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희롱의 본질 2

- **권력 관계의 불균형**이 성희롱의 원인
- 나이, 성별, 지위, 고용형태, 학력, 근속일수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존재
- 개인 간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 내 차별**



가해자가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뤄진 행동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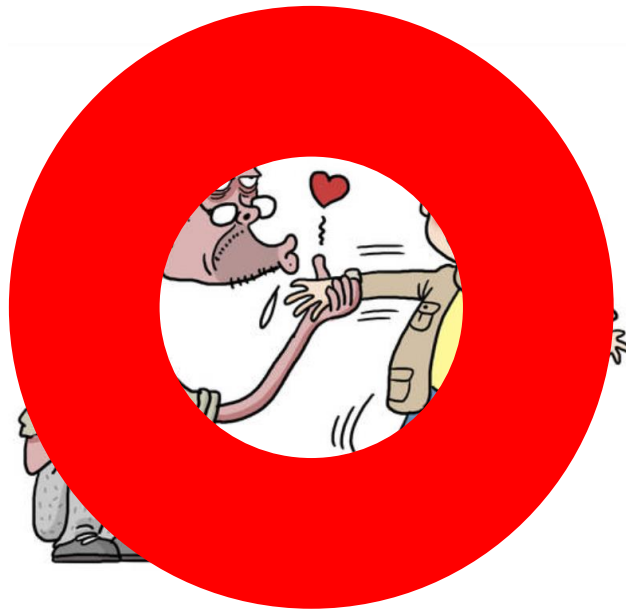
성추행이 맞다?! 아니다?!



한씨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11)양에게 다가갔다.
박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한씨는 “악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박양이 손을 내밀자 한씨는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입을 맞췄다.
당황한 박양이 도망가려고 하자 한씨는
“내 손등에도 뽀뽀해 달라”며 길을 가로막았다.

한씨는 “피해자가 귀엽고 예쁜 마음에 우발적으로 손등에 뽀뽀를 했을 뿐 사람
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성적인 충동에 의해 그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이 맞다?!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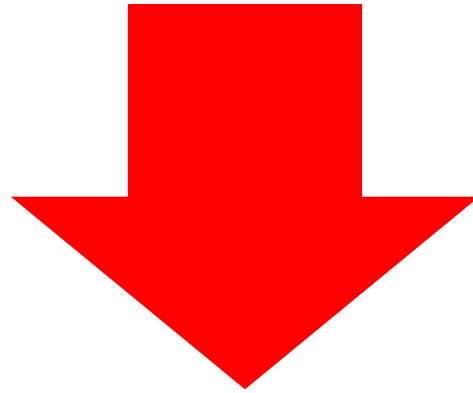


재판부는 “가해자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성추행이 맞다?!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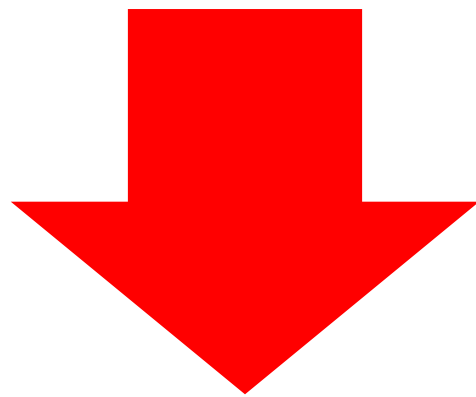
울산에서 마트 앞에서 놀고 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이모(73)씨!



울산지법은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선고했다.

성추행이 맞다?!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연예기획사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16세 가수 지망생의 안쪽 팔뚝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



30대 매니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추행이 맞다?! 아니다?!

"요녀석, 고추 좀 만져보자"는 성추행을 한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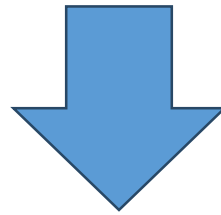


chosun.com

남자 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장난스럽게 만지는 행위도 '성추행'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희롱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49.6%)



내 직장의 심각한 문제다 (3.2%)

동의를 없는 모든
성적 행동은 00다.

범죄